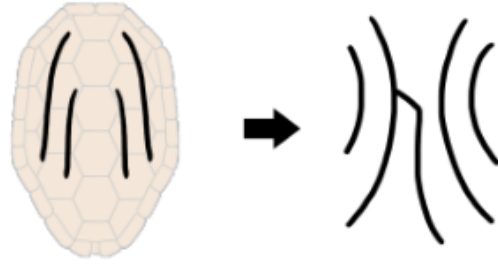


3(2)
-
371

상형문자 ①



兆

억조 조

兆자는 '조짐'이나 '점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兆자는 儿(어진사람 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는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兆자는 거북의 배딱지(復甲)에 나타난 점괘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달궈진 쇠꼬챙이를 거북의 배딱지에 지저 갈라져 나오는 무늬를 보고 점괘를 얻었다. 이때 갈라진 획과 구멍은 '점을 치다'의 卜(점 북)자가 되었고 그 점괘를 기록한 것이 바로 갑골문(甲骨文)이다. 兆자는 거북의 껍데기 전체에 나타난 무늬를 그린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조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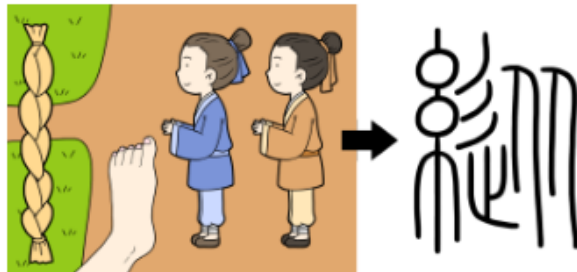
소전

兆

해서

3(2)
-
372

회의문자 ①



縱

세로 종

縱자는 '놓아주다'나 '세로', '방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縱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從(좃을 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從자는 뒷사람이 앞사람을 좇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좃다', '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縱자는 본래 베를 짤 때 베틀의 날실을 좌우로 부드럽게 보내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뜻의 從자에 系자를 결합해 '놓아주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縱자에 '내버려두다'나 '방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날실을 느슨하게 놓아준다는 뜻이 확대된 것이다. 縱자는 '세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날실을 좌우 방향으로 건네주면 모습에서 파생된 것이다.

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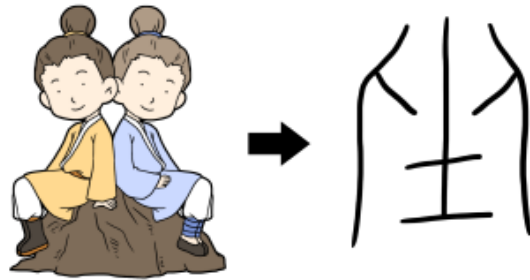
소전

縱

해서

3(2)
-
373

회의문자 ①



坐

앉을 좌:

坐자는 '앉다'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坐자는 土(흙 토)자와 두 개의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소전에서는 土자를 사이에 두고 人자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좌식(坐式)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坐자는 바닥에 앉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坐

소전

坐

해서

3(2)
-
374

회의문자 ①



柱

기둥 주

柱자는 '기둥'이나 '줄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柱자는 木(나무 목)자와 主(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主자는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주인'이라는 뜻이 있다. 柱자는 이렇게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主자에 木자를 결합한 것으로 '중심이 되는 나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즉 柱자는 방 중앙에서 불을 밝히던 촛대처럼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는 뜻이다.

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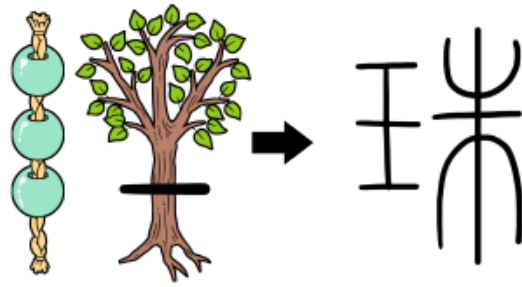
소전

柱

해서

3(2)
-
375

형성문자 ①



珠

구슬 주

珠자는 '구슬'이나 '진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珠자는 玉(구슬 옥)자와 朱(붉을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朱(붉을 주)자는 '적심목(赤心木)'이라 부르는 나무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珠자는 둥근 형태의 보석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珠자는 진주(珍珠)나 구슬처럼 둥그란 모양의 보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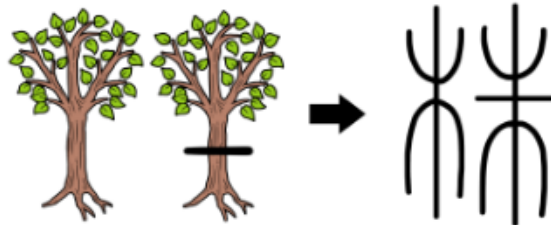
소전

珠

해서

3(2)
-
376

형성문자 ①



株

그루 주

株자는 '그루'나 '근본', '주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株자는 木(나무 목)자와 朱(붉을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朱자는 '붉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루라고 하는 것은 풀이나 나무의 아랫부분을 말한다. '근본'이나 '뿌리'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株자는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밑바탕이라는 의미에서 '근본'이나 '뿌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 주식회사(株式會社)라고 하면 주식이 회사의 자본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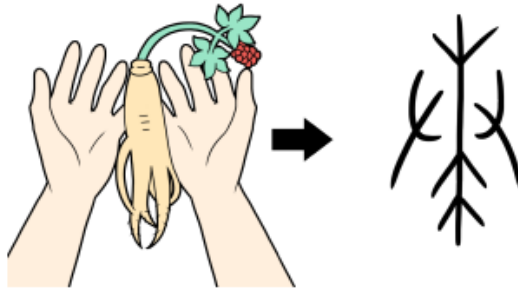
소전

株

해서

3(2)
-
377

회의문자 ①



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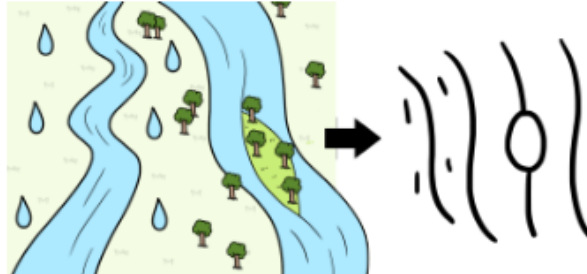
아릴
주(:)

奏자는 '아뢰다'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奏자는 大(클 대)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크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奏자는 양손에 약초를 받쳐 든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奉(받들 봉)자와 기원이 같다. 다만 소전에서는 夭(어릴 요)자가 더해지면서 약초가 아닌 '(음악을)바친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奏자는 '연주(演奏)하다'나 '간주곡(間奏曲)'과 같이 음악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78

회의문자 ①



洲

물가 주

洲자는 '물가'나 '섬', '모래톱'을 뜻하는 글자이다. 洲자는 水(물 수)자와 州(고을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州자는 강물에 실려 온 흙이 모래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마을'이나 '모래톱'이라는 뜻이 있다. 본래 '모래톱'이라는 뜻은 州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州자가 점차 '마을'이나 '고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여기에 水자를 더한 洲자가 '모래톱'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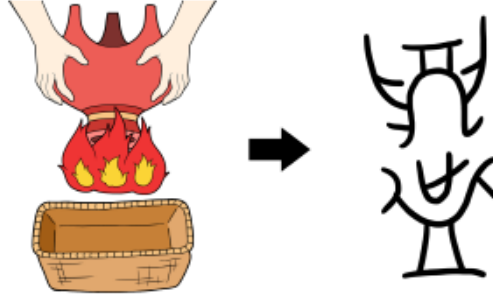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79

鑄

쇠불릴
주

회의문자 ①



鑄자는 ‘(쇠를)불리다’나 ‘(쇠를)부어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鑄자는 金(쇠 금)자와 壽(목숨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壽자는 ‘수→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鑄자를 보면 아래에는 그릇이 놓여있고 그 위로는 양손으로 항아리를 뒤집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녹인 쇠물을 붓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소전으로 넘어 오면서부터는 뜻과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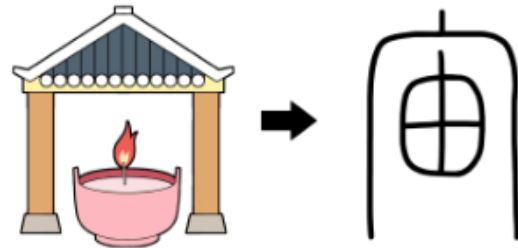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80



宙

집 주:

회의문자 ①



宙자는 ‘집’이나 ‘주거’,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宙자는 宀(집 면)자와 由(말미암을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由자는 등잔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宙자는 본래 집을 떠받치고 있는 ‘마룻대’와 ‘동량(棟梁)’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니 由자는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마룻대와 동량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宙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나 ‘주거지’를 뜻하게 되었고 후에 하늘과 땅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소전	해서